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방 경 숙* · 한 경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성장,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고 있는 유전적 요인들과 출생 후 아동을 둘러싼 외부 세계에 의한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적 영향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이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 1977).

초기 영아의 환경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영아의 어머니인데, 그 이유는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지내며, 또한 육구 충족을 위해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모아관계는 아동의 인지 및 사회,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리라 예상된다(Barnard, 1984 ; Casey, Bradley & Wortham, 1984 ; Lewis, Feiring, McGuffog, & Jaskir, 1984 ; Mac-coby, 1984 ; Sroufe, Fox, & Pancake, 1983). 특히, 생후 6개월까지의 초기단계는 영아의 성장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모아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John Bowlby(1958)에 의해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이 처음 제시된 이후, 모아애착(Mother-Infant Attachment)의 개념은 Klaus와 Kennell등에 의

해 발달되었는데, 민감기인 초기의 모아접촉 유무가 모아애착이나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초기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에는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비단 조기접촉뿐 아니라 어머니, 영아,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모아상호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었다(Barnard, 1984 ; Belsky, Rovine, & Taylor, 1984 ; Egeland & Farber, 1984 ; Stern, 197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또한 기존 연구들은 모아상호작용을 어느 한 시점이나 산육초기에 국한시켜 보았는데 모아상호작용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Belsky, 1984 ; Thomas & Chess, 1977), 일정기간 영아의 성장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의 변화과정은 아직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심리 사회적 자산(Assets), 영아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과거경험, 돌봄의 형태와 적응 기술들을 늘 수 있으며, 영아의 특성으로는 행동, 수면양상, 외모, 어머니에게 적응하는 능력과 기질을,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 경제적 상태, 가족의 지지, 문화적 차이등을 들 수 있다(Baker, Borchers, Cochran, Orcutt, Terry, & Wesolowski, 1986 ; St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rn, 1977). 위와 같은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 임신기간 동안의 사회 심리적 변수에 따른 임신경험지각, 그리고 양육태도들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Banard, 1984 ; Brazelton, 1983 ; Choi, 1981 ; Dixon, Levine, Richman, & Brazelton, 1984),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 여겨져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건강 요구도에 대한 증가와 함께, 간호사의 역할은 질병 회복뿐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건강의 유지, 증진 측면으로 점차 확대 되어감을 감안할 때, 간호사가 인간 발달 초기의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산모가 모성역할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영유아의 이후 삶을 보다 높은 질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분만후 1, 3, 6개월의 시간 경과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며, 초산모의 임신경험지각과 영아모의 태도는 모아상호작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궁정적인 모아상호작용 도모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2. 연구문제

- 1)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2)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아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 3) 초산모의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후 1, 3, 6개월의 모아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있는가?
- 4) 초산모의 분만후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있는가?
- 5) 초산모의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후 2-3일,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와는 관련성이 있는가?

3. 가설

- 1)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아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초산모의 다음과 같은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후 1, 3, 6개월의 모아상호작용간에는 관련성이 있

을 것이다.

- (1)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 (2) 임신에 대한 수용
- (3) 모성역할 기대
- (4) 분만을 위한 준비
- (5)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 (6)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 (7) 남편과의 관계

- 4) 초산모의 분만 후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간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5) 초산모의 다음과 같은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후 2-3일,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간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1)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 (2) 임신에 대한 수용
- (3) 모성역할 기대
- (4) 분만을 위한 준비
- (5)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 (6)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 (7) 남편과의 관계

4. 용어 정의

1) 모아상호작용

모아가 상호 보여주는 행동반응으로서, 영아를 안는 어머니의 동작, 형태, 감정의 표현, 영아에 대한 근접성 행동, 영아와의 놀이 형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구성되 Walker등 (1982)의 MIPIS(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의 점수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을 나타낸다. MIPIS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평점된다.

2) 임신경험지각

임신과 앞으로의 모성역할에 대한 적응정도를 스스로 평가 하도록 만든 Lederman의 도구, 산전 자가평가 설문서(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의 점수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 감정이 적음을 나타낸다. 산전 자가평가 설문서는 4-Rating Scale로 총 79문항이며 다음의 7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 (1)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10문항)
임부가 자신과 태아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합병

중에 대한 염려, 걱정 및 분만에 대한 불안을 말하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점된다.

(2) 임신에 대한 수용(14문항)

아기보다는 임신자체에 대한 임부의 반응으로, 임신에 대한 기쁨, 불편함의 감수, 양가감정의 정도를 포함하며, 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으로 평점된다.

(3) 모성역할 기대(15문항)

임부가 모성역할을 기대하는 정도와 영아돌보기에 대한 만족정도를 말하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평점된다.

(4) 분만을 위한 준비(10문항)

임부가 분만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를 찾거나 준비한다고 느끼는 정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점된다.

(5)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10문항)

분만동안의 스트레스와 통증, 그리고 분만사건에 대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임부의 자가 예측 능력으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점된다.

(6)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10문항)

임부와 친정 어머니 사이의 밀접성, 지지, 공감대의 정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점된다.

(7) 남편과의 관계(10문항)

임부와 남편과의 관계로 상호성, 지지, 의사소통양상을 말하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점된다.

3) 영아모의 태도

영아모의 영아 양육 태도에 대한 적응성으로서, Cohler의 'Maternal Attitude Scale'의 점수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양육에 관련된 긍정적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총 23문항의 7-Rating Scale로 최저 23점에서 최고 161점으로 평점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서울시내 2개 종합 병원에 국한된 것이며, 이 연구를 거절한 대상자는 제외되었으므로 전체 모아의 특성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II. 문헌 고찰

모아상호작용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 발전하며(Belsky등, 1984; Robson, & Moss, 1970; Thomas & Chess, 1977), 이러한 모아상호작용은 영아모가 지각하는 상황의 전후 관계와 경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Banard, 1984; Egeland & Farber, 1984; Klaus & Kennell, 198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 변수로 선택한 모아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영향 변수로서 영아모의 임신경험 지각과 양육 태도를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선행 연구 및 문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모아상호작용

모아관계는 영아에게 있어서는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의미있고 친밀한 관계로서 사회화의 원천이 되며, 또한 모성측에서는 경험을 충만하게 하는 개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가 된다(Bigner, 1985). 이러한 모아관계는 어머니와 초기 영아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 발전하게된다(Belsky등, 1984; Thomas & Chess, 1977).

모아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를 고찰해보면, Bowlby (1958)와 Klaus, Kennell등 (Klaus & Kennell, 1970; Klaus, Jerauld, Kreger, McAlpine, Steffa, & Kennell, 1972)은 모아관계 형성에 있어 다른 포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분만 후 수시간 또는 수일의 민감기(sensitive-period)가 있으며, 이 시기에 모아가 분리되어 있거나 관계 장애의 요소가 있으면 모아 결속이나 애착(attachment)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감기인 초기의 모아접촉 유무가 애착에 과연 영향을 주는지, 또는 어느 기간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및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즉, Klaus와 Jerauld등(1972)은 초임부를 대상으로 조기접촉이 이후의 영아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는데, 대조군은 출산 후 병원의 정규 간호를 받고, 실험군은 분만직후 16시간동안 연장된 모아 접촉을 시킨 후 약 한달 뒤에 영아모의 행동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더 많은 시각적 모아상호작용과 달래고 보살피는 행동을 발견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머니와 신생아의 초기 피부접촉이 모성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1984)은 조기 피부접촉을 한 실험군에서 대조

군보다 더 많은 모성유대행위 빈도를 관찰 하였다. 그러나, Svejda와 Campos(1980)는 초임부를 대상으로 정규 간호를 받은 대조군과 분만실에서 더 오랜 시간 조기 접촉 시키고 수유 시간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실험군의 모성 행동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의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기접촉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Tulman(1981)도 Klaus와 Kennell의 모아결속에 대한 연구의 타당도가 낮음을 비평 하였고, Taylor등 (Taylor, Taylor, Cambell, Maloni & Cannon, 1985)도 이러한 민감기에 대하여 논박한 바 있다.

최근 10-20년간 간호계 및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미단 조기접촉뿐 아니라 어머니, 영아,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모아상호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Barnard, 1984 ; Belsky등, 1984 ; Egeland & Farber, 1984 ; Stern, 1977).

한편, Bigner(1985)에 의하면 모아관계는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체계로서 각 개인은 행동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로서 일련의 행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아상호작용 체계의 특성은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각 개인에 의한 자극투입, 반응산출로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모아간 균형유지를 위한 상호관계의 조직과 질서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 초기의 모아관계가 이후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어(Ainsworth, 1985 ; Belsky 등, 1984 ; Cropley, Catherine & others, 1976 ; Thomas & Chess, 1977) 그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몇가지 살펴보면, 먼저 Ainsworth(1964)는 모아 분리 상황에서 모아애착을 관찰하고 재결합시의 유아행동에 따라 불안-회피군, 안정 애착군, 불안-저항군의 세 유형으로 분류 하였는데, 이러한 Ainsworth의 분류에 따라 애착 유형과 이후의 아동 발달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Sroufe등(1983)은 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이후 학령전기시의 발달과의 연관성을 관찰한 결과 불안-회피군이나 불안-저항 군의 아동이 안정 애착 군보다 더 의존적임을 발견 하였다. 또한, 안정 애착군의 아동은 다른 두 집단의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얻음을 발견하고, 과잉 의존성은 초기 모아관계의 질에 좌우된다고 결론지었다. Lewis등(1984)은 1세 때의 애착유형과 6세 때의 유아행동을 관찰한 결과,

남아의 경우 1세 때의 애착유형은 6세 때의 정신병리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Schneider-Rosen과 Cicchetti(1984)도 19개월된 37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이 있는 군에서 더 많은 시각적인 자기 인식(Visual self recognition)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Egeland와 Farber(1984)에 의하면 9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인지 및 운동발달을 검사한 결과 불안-저항군에서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인지, 행동발달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Maccoby(1984)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초기의 모아관계가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2.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먼저, Barnard는 그의 연구에서 모아상호작용에 관여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 하였는데, 첫째, 영아의 특성으로 행동, 수유 및 수면양상, 기질,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적응하는 능력을 들었으며, 둘째, 어머니의 특성으로 심리 사회적 자산(Assets), 영아에 대한 관심, 자신의 건강, 자신이 경험했던 생활의 변화량, 영아에 대한 기대, 돌봄의 형태와 적응기술을, 그리고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물리적 환경,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참여정도등을 들었다(Baker등, 1986). Stern(1977)은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아의 특성으로는 행동, 수면 양상, 외모, 어머니에게 적응하는 능력과 기질을, 그리고 어머니의 요인으로서 사회 심리적 특성, 과거경험, 분만시 경험, 돌봄의 형태와 적응기술, 수유형태등을 제시하였다.

1) 임신경험 지각

임신은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발달 위기로써 개인의 지각에 따라 다소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임신으로 인해 임부는 종래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감내해야 하며, 이렇게 변화된 역할과 생활양상은 긴장과 불안, 갈등을 초래하므로 새로운 역할,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된다(Genievie & Margolies, 1987 ; Mercer, 1986).

임산부가 임신 혹은 분만에 대해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공

포, 분만의 합병증 또는 시간을 맞추어 병원에 가서 분만을 하지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분만시 동통, 진료소나 병원에서의 처치, 가족관계, 가사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한 염려 및 공포감 등이다(Westbrook, 1978). 또한 아기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은 주로 태아이상, 아기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태아사망 및 기형등에 대한 공포감이라 한다(Shereshefsky등, 1973). 한편, Genevie와 Margolies(1987)의 보고에 의하면, 그의 연구 대상자중 임신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산모는 35%뿐이고 나머지 65%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개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는 이처럼 다르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지각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 욕구, 정서와도 관계가 있으며, 대상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의미, 또는 지각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같은 여러가지 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 황, 전 & 황 : 1979).

또한 개인의 지각은 과거의 경험, 자아개념, 사회, 경제적 상태, 생물적, 유전적 및 교육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조, 1988).

인간의 행동과 반응은 행동하는 개인의 즉각적인 자아,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좌우된다고 볼 때(김, 1983), 출산후의 모아관계는 그 이전의 경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는데, Klaus와 Kennell(1982)은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어머니 자신이 양육 받을때의 돌봄의 양상, 임신 전에서부터 임신과정동안의 경험, 분만과정중 받았던 지지의 종류와 가족관계, 모아동실 또는 분리등의 환경 조건을 제시 하였으며, Mercer(1986)는 모아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모성역할을 들고, 이러한 모성역할은 임신 기간동안 임부가 태아를 자아체제 안에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고 하였다. 또한, Peterson(1978)은 그의 연구결과, 임신과 아기에 대한 희망, 임신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아기에 대한 예상되는 정서적 만족도등을 포함하는 산전 태도 점수(Prenatal attitude score)가 모아분리, 분만경험 등과 더불어 산후의 모아애착을 예견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신기간 동안의 임부의 사회 심리적 적응 상태 및 임신경험지각은 Lederman(1984)이 개발한 포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는 모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임부 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임신에 대한 수용, 모성 역할 기대, 분만을 위한 준비,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들고, 이를 기초로 임신경험지각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산전 자가평가 설문서(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2) 영아모의 태도

Krech와 Crutchfield는 태도를 '개인의 생활의 어떤 측면에 대한 동기적, 정서적, 지각적 및 인지적 과정의 지속적인 구성체' 로서 정의하며,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 하였다(홍, 1984). 또한, 어떤 특정 대상, 아이디어나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체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임신기간 동안의 임부의 정서적 경험, 주관적인 지각들은 산후 영아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영아모의 양육태도는 각 나라의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경험, 가치에 따른 신념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해도 큰 변화가 없는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arnard(1984)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육아방법 및 행동은 영아에 대한 자극의 종류, 양, 그리고 안아주는 빈도나 놀아주는 태도등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 Choi(1981)는 미국인과 한국인 산모를 대상으로 모아상호작용과 어머니의 태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인 어머니는 미국인 어머니보다 영아를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인식하며, 영아의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인 영아에 대해 보다 공감적이라는 것과 영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등이 나타났다. Dixon등(1984)은 아프리카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를 비교하였는데, 아프리카의 어머니는 미국인 어머니보다 반복된 지시, 손 잡아당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언어 사용은 더 적게 함은 발견 하였다. 미국인 어머니는 더 많은 칭찬, 격려, 반향적 언어를 보여 특정 문화의 가치, 아동에 대한 기대, 교육 목적의 차이등으로 인해 모아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산모의 특성에 따른 영아모의 태도 연구로 권(1987)은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모아상호작용에는 두 군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성 정체감 인지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모아상호작용과 모성 정체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신념을 기초로 한 모성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태도 측면의

사정은 좀 더 긴 시간의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바람직 함을 제언하였다. 한 과 박(1985)도 산전 Lamaze교육이 영아모의 영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태도 변화에는 추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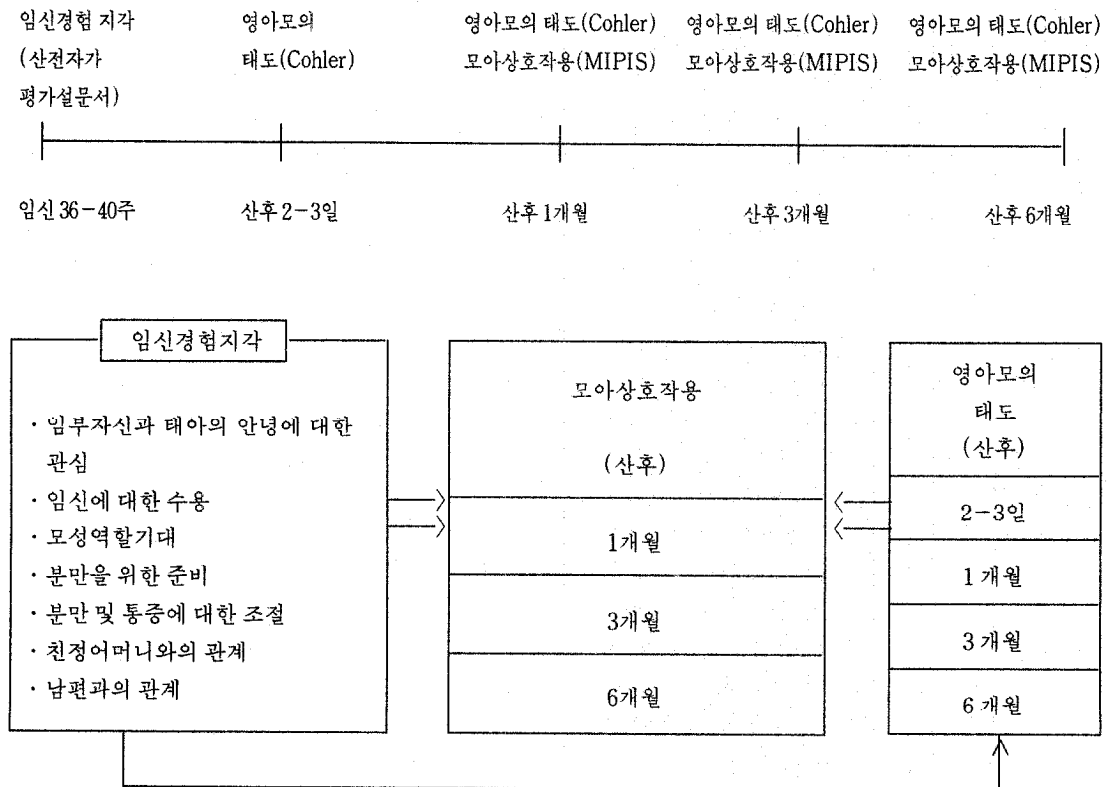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아상호작용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일정기간 영아의 성장에 따른 모아

상호작용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산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모아상호작용을 사정하였다. 또한, 모아상호작용은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또는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영아에 대한 영아모의 태도 및 그 사회의 양육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가지를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영향 변수로 고려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임신 36주 이후부터 산후 6개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성을 살펴보는 종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Longitudi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로 설계 되었다. 이 연구설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Longitudi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88년 10월 25일부터 1989년 3월 15일 까지 S대학병원과 C대학병원 산과외래를 방문한 초임

부 중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하며,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고, 임신 36주 이상 되는 50명을 1차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거나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인 경우, 또는 선천적 결함

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제외되었으며, 분만 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울지역외로의 거주지 이동, 참여거부등의 이유로 탈락된 경우가 있어, 연구가 끝나는 산후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산모는 36명이었다.

3. 연구 절차

대상이 되는 2개의 대학병원에서 산전관리를 위해 산과외래를 방문한 임부중 대상기준에 맞는 임부 모두에게 연구목적 및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산전 자가 평가 설문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산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구자의 전화번호를 주어 분만 후 연락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별도로 대상 병원에서 대상자와 분만 유무를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여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모성역할 획득의 단계에서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아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분만 후 2-3일, 1, 3, 6개월(Mercer, 1986)에, 분만 후 2-3일에는 병실로 방문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편리한 시간을 약속한 후 가정 방문 하였다. 분만 후 2-3일인 1차 방문시 분만유형 및 필요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방문시마다 영아모의 태도를 사정하기 위해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또한, 분만 후 1, 3, 6개월에는 모아 상호작용을 사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기가 자유롭게 놀도록 하고 10분간 비디오로 촬영 하였다. 촬영된 필름은 후에 MIPI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때 촬영된 필름을 보면서 전문가로부터 MIPIS에 대한 훈련을 받아 연구자와 또 한 명의 관찰자 사이에 모두 0.80이상의 일치도를 보인 후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두명이 함께 MIPIS점수를 평가 하였는데, 관찰자간의 신뢰도는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본 결과 1개월시 0.86, 3개월시 0.72, 6개월시 0.73을 나타냈다. 결과 분석시는 두 사람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모아상호작용-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MIPIS).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 상호작용시 모아간의 상관성

(mutuality)과 호혜성(reciprocity)을 측정하기 위해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Nursing의 Walker등(198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것은 직접관찰이나 비디오 촬영후 측정할 수 있으며 시행시 관찰과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이다.

의 동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행동반응의 기준에 따라 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Walker & Thompson, 1982). 도구 개발자가 보고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8%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는 전체 점수에 대한 것이 .70이상으로 만족할 만 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hoi(1981)가 .98, 권(1987)이 .92의 Cronbach α 를 보고하여, 도구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시기에 따라 .72~.86의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보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산후 1개월시 .94, 3개월시 .94, 6개월시 .91의 Cronbach α 를 나타내었다.

2) 임신경험지각-산전 자가 평가 설문서

임부의 임신과 앞으로의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정도를 사정하기 위한 4-Ranting Scale의 7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Lederman(1984)이 개발하였다. 내용은 임신에 대한 수용,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모성 역할 기대, 분만을 위한 준비,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Lederman이 개발 당시 이 도구는 각각의 범주에 대한 신뢰도가 Cronbach α 계수 .75~.92였으며, 각 범주 사이의 intercorrelation은 .06~.54라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범주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65~.90을 나타냈으며, 각 범주 사이의 intercorrelation은 .01~.59로 나타났다.

3) 영아모의 태도-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이 도구는 영아모의 영아 양육태도의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원래 Likert type항목 233개 중에서 영아 양육에 관한 23개 항목을 선정, 변안하여 부정(negative)항목의 점수는 반대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양육에 관련된 긍정적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나타내는 이 척도는 영아의 요구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최근에 Choi의 연구에서는 .78, 한 과

박(1985)에서는 .88,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2~3 일에 .66, 1개월시 .61, 3개월시 .55, 6개월시는 .67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해 서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이용하였다.
- 2)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은 서술통계로 보았으며 월령별 차이는 짝비교 분산분석(이, 1988)과 t-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의 차

이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 4)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 후 1, 3, 6개월의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 산전 임신경험지각과 분만 후 2~3일,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와 관련성은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이용 하였다.
- 5) 모아상호작용의 평가에 대한 관찰자간의 신뢰도는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이용 하였다.
- 6) 도구의 내적 일관성 측정은 Cronbach α 를 이용 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
Maternal Age	≤ 29	28	77.8
	≥ 30	8	22.2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8	22.2
	College	28	77.8
Maternal Job	Employed	10	27.8
	Non-employed	26	72.2
Delivery Type	Normal	26	72.2
	C/S	10	27.8
Sex of Infant	Male	15	41.7
	Female	21	58.3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모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분만유형, 그리고 아기의 성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빈도와 백분율은 Table 1과 같다.

2. 모아상호작용

1) 영아의 월령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가설 1의 검증-산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3차례에 걸쳐 모아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반응,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의

일치성으로 구성된 전체 점수를 시기별로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에서 각각 54.96, 62.79, 59.39로 영아가 3개월시의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높으며(Table 2), 통계적으로도 1개월과 3개월, 1개월과 6개월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4). 그러므로,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가설 2의 검증-초산모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분만유형, 아기 성별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아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위해 특성의 각 범주별 MIPIS 점수의 평균을 t-test로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2. Means for MIPIS by Infant's age

MIPIS \ Infant's age	1 month	3 months	6 months
Total Score	54.96	62.79	59.39
Maternal Subscale	38.33	42.70	39.53
Infant Subscale	10.35	12.54	12.30
Dyadic Subscale	6.30	7.80	7.56

Table 3. Summary of Results for the Repeated – measures ANOVA for 1 M. 3 M. 6 M. MIPIS Scores

Source	SS	df	MS	F	p
Between	4206.63	31			
Within	5527.84	64			
Time	1112.59	2	556.30	7.81	P<.01
Error	4415.25	62	71.21		

Table 4. Results of t – test for MIPIS difference by infant's age

Group	t – value	p
1 M, 3 M	3.71	p< 0.1
1 M, 6 M	2.10	p< 0.5
3 M, 6 M	1.61	p> 0.5

Table 5. Results of t – test for MIPIS Scor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	1 M	3 M	6 M
Maternal Age	≤29 (28)	54.39	61.88	59.88
	≥30 (8)	56.94	65.88	57.57
	t – value	– .60	–1.54	.71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8)	53.62	59.33	58.21
	College (28)	55.33	63.57	59.71
	t – value	– .40	.94	– .46
Maternal Job	Non – employed(26)	54.00	61.08	58.84
	Employed (10)	57.45	67.05	61.12
	t – value	– .88	–1.67	– .74
Delivery Type	Normal (26)	53.59	62.36	59.50
	C/S (10)	58.50	63.85	59.15
	t – value	–1.27	.40	.12
Sex of Infant	Male (26)	52.40	60.63	59.23
	Female (21)	56.78	64.40	59.50
	t – value	–1.25	–1.05	– .10

3. 임신경험 지각과 모아상호작용

1) 임신경험 지각

대상자인 36명의 초임부들이 임신경험중 긍정적 또

는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기 위해 임신경험 지각의 7가지 범주별 평균과 그것을 각 범주별 문항수로 나눈 문항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임신경험중 가장 긍정적으로

Table 6. Perception of Pregnancy

7 Categories	Categorical Means (S.D)	N of Item	Item Mean	Ranking
Concern for Well-Being of Self and Baby	19.89(5.54)	10	1.99	6
Acceptance of Pregnancy	19.70(3.80)	14	1.41	1
Identification of a Motherhood Role	23.08(5.85)	15	1.51	2
Preparation for Labor	22.28(4.41)	10	2.23	7
Fear of Pain,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18.53(3.72)	10	1.85	5
Relationship with Mother	15.92(4.16)	10	1.59	4
Relationship with Husband	15.78(3.66)	10	1.58	3

받아 들이는 부분은 임신수용, 모성역할기대, 남편과의 관계의 순으로 각각의 문항평균은 1.41, 1.51, 1.58이었으며, 가장 갈등 감정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분만을 위한 준비, 임부 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의 순으로 문항평균은 2.23, 1.99, 1.85로 나타났다.

2) 임신경험지각과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

가설 3의 검증-산전의 임신경험지각과 분만후 1개월, 3개월, 6개월시의 모아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rception of Pregnancy and MIPIS

Perception of Pregnancy	MIPIS		
	1 month	3months	6months
Concern for Well-Being of Self and Baby	-.27	.09	-.10
Acceptance of Pregnancy	-.30	.03	.08
Identification of a Motherhood Role	-.19	.25	.32
Preparation for Labor	.24	-.05	-.15
Fear of Pain,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01	.25	-.02
Relationship with Mother	-.14	.08	.02
Relationship with Husband	.09	-.03	.17

4.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

1) 영아모의 태도

분만후 2-3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4차례에 걸쳐 영아모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표준 편차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으며<Table 8>,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Table 9>.

2)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

가설 4의 검증-영아모의 양육태도는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4. 는 그 관련성 여부를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로 검증해 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Table 10>.

Table 8.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the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by Infant's age

	Postpartum 2-3 days	1 Month	3 Months	6 Months
Means	101.08	101.31	101.31	104.30
SD	10.60	10.21	9.23	10.87

Table 9. Summary of results for the repeated - measures ANOVA for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Source	SS	df	MS	F	P
Between	5781.75	21			
Within	2862.00	66			
Time	203.50	3	67.83	1.61	P>.05
Error	2658.50	63	42.20		

Table 1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and MIPIS Scores

	Cohler	Postpartum 2-3 days	1 Month	3 Months	6 Months
MIPIS					
1 Month		.07	.33	.21	.14
3 Months		-.15	-.15	-.32	-.20
6 Months		-.15	.02	.02	.18

5. 임신경험지각과 영아모의 태도

가설 5의 검증-산전의 임신경험지각과 분만 후 2-3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4차례에 걸친 영아모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 가설 5. 중 1) 임부 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은 3, 6개월에, 2) 임신수용은 6개월, 3) 모성 역할 기대는 산후 2-3일과 1, 3개월에, 5)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은 1, 3, 6개월에, 그리고 7) 남편과의 관계는 산후 2-3일에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11>.

Table 1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rception of Pregnancy and Cohler's Maternal Attitude

Cohler	Post-partum			
	2-3 D	1 M	3 M	6 M
Concern for Well - Being of Self and Baby	-.03	-.05	-.44**	-.54*
Acceptance of Pregnancy	-.24	-.38	-.38	-.50*
Identification of a Motherhood Role	-.43*	-.41*	-.47*	-.30
Preparation for Labor	-.20	-.20	-.20	-.28
Fear of Pain,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37	-.56**	-.54**	-.52*
Relationship with Mother	-.01	.02	-.10	-.03
Relationship with Husband	-.43*	-.22	-.31	-.20

*: $p < .01$, **: $p < .001$

V. 논 의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의 변화 과정 및 이에 대한 영향 변수로서의 임신경험 지각, 영아모의 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를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우선, 본 연구 대상자의 모아상호작용을 MIPIS 점수를 기준으로 Walker와 Thompson(198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1개월시 54.96, 3개월시 62.79, 6개월시 59.39로 나타나(Table 2 참조) Walker와 Thompson의 연구에서 분만 후 4-6주에 미국인 초임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MIPIS 평균이 53.3으로 나타난 것보다 약간씩 높은 점수를 보였다. Choi(1981)가 미국 거주 한국인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후 2-3일과 7-13일의 두 차례에 걸쳐 관찰한 결과도 전체 평균이 각각 38.7, 40.9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이 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나라 초임부가 모아상호작용을 더 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본 연구의 경우, 여러 차례의 연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 산모들보다 모아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이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끝까지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기별로 보면, 영아가 3개월, 6개월시의 MIPIS 점수가 1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그 중에서도 3개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는데(Table 3, Table 4 참조), 이는 산후 1개월에는 아직 영아모의 산후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고 모성 역할에 대한 적응도 완전하지 못하며 영아의 반응 정도도 멀어지지만, 3개월에는 영아모가 모성역할에 적응하며 시기적으로 영아도 다루기 수월해지고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반응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8개월이 되면 영아의 활동량이 증가되면서 돌보기가 어려워지고 영아모는 다시 모성역할에 재도전 하는 시기라고 Mercer(1986)는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요인이 모아상호작용의 점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분만형태, 아기성별등의 일반적 특성은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Table 5). 이것은 분만형태에 따라 임부의 분만경험 지각이 영향을 받으며, 결국 모아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기존 연구의 주장(Cranley, Headahl & Pegg, 1983; Marut & Mercer, 1979; Mercer, 1979; Mercer, Hackley &

Bostrom, 1983; Tulman, 1986)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의 성별에 따라 신생아 접촉시의 애착행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이와 김(1981)의 연구나 학력, 산모의 직업유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이(1982)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육기 초기에 행해진 위의 연구들과 본 연구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1988)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분만형태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과정을 관찰한 결과 분만 후 처음 3일까지는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산모의 두 집단 사이의 모아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가 그 이후부터 차츰 차이가 줄어서 4주 이후에는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월 이후의 모아상호작용만 보았으며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분만형태는 산육 초기의 모아상호작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산후 1개월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7가지 범주로 된 임신경험 지각에 대한 초임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임신경험중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신수용, 모성역할기대, 남편과의 관계의 순이었으며, 가장 갈등 감정을 많이 겪는 부분은 분만을 위한 준비, 임부 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의 순이었다(Table 6 참조). Lederman(198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항목이 모성역할 기대, 임신수용, 분만을 위한 준비였으며, 부정적인 항목이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임부가 미국의 임부들에 비해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슷한 반면에, 분만에 대해서는 산전에 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보다 산전교육시 호흡법등 분만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실제로 각 범주별 문항평균을 비교해 보면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분만을 위한 준비에서 본 연구는 각각 19.89, 22.28인데 비해 Lederman의 연구에서는 각각 16.5, 15.9로 나타나 7가지 범주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산모의 임신경험지각과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하였는데(Table 7 참조), 임신경험지각이 모아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기까지, 즉, 산 후 1개월까지의 기간

을 거치는 동안 임신경험에 대한 지각은 이미 모아상호작용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모아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의 월령에 따른 영아모의 태도를 보면, 분만 후 2-3일, 1, 3, 6개월에 영아모의 태도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함을 볼 수 있다(Table 8, Table 9 참조). 이것은 태도는 일단 확립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속된다는 이론(홍, 1984)과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아모의 태도는 모아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 도 지지되지 못하였는데(Table 10 참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이 행동을 유발하며 상황적 압력과 갈등이 없을 때에 행동은 태도와 일치된다는 일반적인 사회학적 견해(홍, 1984)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1987), 한 과 박(1985)의 연구에서도, 비록 보성 성제삼이나 영아모의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모아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하였지만, 그들의 연구결과도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모성태도나 지각은 모아상호작용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이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일반적인 사회학적 이론과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영아모가 아무리 아기에 대한 애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해도 이를 표현하는 행동양상은 모아상호작용 증진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과 행동이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을 유도해 해는가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모아 관계에서는 모아가 주고 받는 호혜성(reciprocity)이 매우 중요시 되는데, 호혜성이란 어머니와 아기가 서로에게 만족스런 행동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Anderson(1981)은 설명하였다. 즉,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행위로는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아기는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신호(cue)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적절한 종류와 양의 자극을 아기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Belsky 등, 1984).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모들은 초기의 영아를 사회적 능력을 가진 인간 개체로서 보다는 감각기능을 갖춘 하나의 생물체로 인식하며, 상호 교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즉, 영아의 무드나 관심에 초점을 두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반응의 근접성이나 상호작용 유도기술에 대한 정보가 어머니에게 요구 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산전 및 산욕 초기에 영아의 특성, 행동, 발달과정등에 대해서 비디오 상영 및 설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분만 후 자신의 아기에 대해 반응 유도 방법등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직접 시행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아의 사회적 능력을 인식시키고 영아모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산후 초기의 초산모에게 모성역할 획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Klaus와 Kennell(1982), Bower(1982)등도 영아에 대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영아의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데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산욕초기에 영아모에게 Brazelton의 신생아 사정 시범을 보이고 직접 시행해 보도록 한 실험군에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대조군에 비해 모아상호작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어 (Anderson, 1981 ; Widmayer & Field, 1980 ; Wrobey & Belsky, 1982) 이 부분에 대한 간헐중재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한 과 박(1985)은 산전 Lamaze 교육을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영아모의 민감성과 영아의 상호작용 반응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으며 한 과 Choi(1986)도 영아의 행동과 반응 유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영아모에서 모아상호작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임신경험지각이나 영아모의 태도가 모아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아상호작용에는 어머니측 요인뿐 아니라 영아,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모아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초산모의 임신경험지각과 영아모의 태도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5.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영아모의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임신경험 지각으로는 자신과 영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임신수용, 모성역할 기대,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을 들 수 있다 (Table 11 참조).

일반적으로 영아와 영아 양육에 대한 영아모의 태도는 영아모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한 태도는 개인의 사회화와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Thomas & Chess, 1977). 그러므로 임신기간을 거치는 동인의 경험, 임신에 대한 지각이 영아모의 태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위의 견해와 일치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아모의 태도는 문화적 가치,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Choi(1984)가 보고했는데, 실제로 그 보고에서 분만후 2-3일에 미국인 영아모는 평균치가 122.14, 한국인 영아모는 98.76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한 과 박(1985)의 연구에서는 106.73으로 나타난 것을 본 연구에서 평균 101.10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 영아모는 세 연구의 대상자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인 영아모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가 영아모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산전교육 및 체계적인 임신부의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임신경험과 양육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아의 사회적 능력을 인식 시킴으로써 영아모의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아상호작용에 대해서 생후 6개월까지 종적인 연구가 행해진 것이 없는 바,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서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아상호작용의 변화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임신경험지각이 영아모의 태도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영아모의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산모교육 및 육아관행 시범, 그리고 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등의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988년 10월 25일부터 1989년 9월까지 36쌍의 모아를 대상으로 산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세 차례에 걸쳐 영아의 월령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산전 임신경험 지각 및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반응, 모아상호작용의 일치성으로 구성되는 모아상호작용은 산후 1, 3, 6개월의 세 차례중 3개월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1개월과 3개월, 1개월과 6개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4 참조>.

2) 초산모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분만유형, 아기 성별등의 일반적 특성은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Table 5 참조>.

3) 초산모들이 임신경험 지각중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신수용, 모성역할 기대의 순이며, 가장 갈등 감정을 많이 겪는 부분은 분만을 위한 준비,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의 순이었다<Table 6 참조>.

4) 산전 임신경험 지각과 산후 1, 3, 6개월의 모아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없었다<Table 7 참조>.

5) 영아모의 태도는 분만 후 2-3일, 1개월, 6개월의 4차례에 걸쳐 큰 변화없이 일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9 참조>.

6) 산후 1, 3, 6개월의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10 참조>.

7) 임신경험지각중 임부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임신수용, 모성역할기대, 분만 및 통증에 대한 조절, 남편과의 관계는 산후 영아모의 태도와 관련성이 있었다<Table 11 참조>.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월령에 따라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산전 임신경험지각이 영아모의 태도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이 두가지 변수가 모아상호작용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영아모의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산모교육 및 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영아모의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경험 제공의 간호중재를 활용하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어머니, 영아, 환경 등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임신경험지각중 가장 부정적이며 또한 영아모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분만을 위한 준비, 임부 자신과 태아의 안녕에 대한 관심, 분만 및 통중에 대한 조절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산전 교육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재은, 황태연, 전완화 & 황응연, 일반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이경혜,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2, 12(2), 67-79.
- 이동우, 보건통계학방법, 신광출판사, 1988.
- 이자형, 김진향,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1, 11(2), 9-19.
- 임은숙, 어머니와 신생아의 초기 피부접촉이 모성 유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 정원식,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1977.
- 조미영,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모아상호작용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한경자, 박영숙, 산전 Lamaze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회지, 1985, 15(2), 16-24.
- 한경자 & Choi, E.S.C., Influence of explanation of infant behavior and eliciting infants social response on Mother-Infant interaction,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986, 1(1), 3-12.
- 홍대식, 사회심리학, 박영사, 1984.
- Ainsworth, Patterns of attachment behavior shown by the infant in interaction with his mother, *Merrill-Palmer Quarterly*, 1964, 10, 51-58.
- Ainsworth,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tecedents and effects on development,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1985, 61(9), 769-791.
- Anderson, C.J., Enhancing Reciprocity between Mother and Neonate, *Nursing Research*, 1981, 30(2), 89-93.
- Baker, J.K., Borchers, D.A., Cochran, D.T., Orcutt, N., Terry, E.G., & Wesolowski, C.A., Kathryn E. Barnard: Parent-Child Interaction Model. In Ann Marriner(Ed.)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The C.V. Mosby Co. 1986.
- Barnard, K.E.,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1984, 1, 3-25.
- Belsky, J., Revine M., & Taylor, D.C., The Pennsylvania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1984, 55, 718-728.
- Bigner, J.J.,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11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Bower, T.G.R., *Development in Infancy*(2nd ed.).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1982.
-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58, 39, 350-373.
- Brazelton, T.B., *Infants and Mothers*(revised ed.). NY: Dell Publishing Co. Inc.
- Casey, P.H., Bradley, R., & Wortham, B., Social and Nonsocial Home Environments of Infants with Nonorganic Failure to Thrive. *Pediatrics*, 1984, 73(3), 348-353.
- Choi, E.S.C., *Mother-Infant interaction among Korean and American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Cranley, M.S., Headahl, K.J., & Pegg, S.H., Women'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deliveries. *Nursing Research*, 1983, 32(1), 10-15.
- Cropley, Catherine, & others,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 Current Practice in Obst. Gyneco. Nursing*, 1976, 1, 16-28.
- Dixon, S.D., Levine, R.A., Richman, A., & Brazelton, T.B., Mother-Child Interaction Around a Teaching Task ; An African American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1984, 55, 1252-1264.
- Egeland, B., & Farber, E.A.,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1st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1984, 55, 753-771.
- Genevie, L., & Margolies, E., *The Motherhood Report-How women feel about being mothers*.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87.
- Klaus, M., Kennell, J., Human maternal behavior at the first contact with her young. *Pediatrics*, 1970, 46(2), 187-192.
- Klaus, M.H., Jerauld, R., Kreger, N.C., McAlpine, W., Steffa, M., & Kennell, J.H., Maternal attachment importance of the first post-partum day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72, 286(9), 460-463.
- Klaus, M.H., & Kennell, J.H., *Patent-Infant Bonding*. (2nd ed.). The C.V. Mosby Co, 1982.
- Lederman, R.P. *Psychosocial adaptation in pregnancy-Assesment of seven dimensions of maternal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1984.
- Lewis, M., Feiring, C., McGuffog, C., & Jaskir, J., Predicting psychopathology in six-year-olds from early soci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1984, 55, 123-136.
- Maccoby, E.E.,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1984, 55, 317-328.
- Marut, J.S., & Mercer, R.T.,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 *Nursing Research*, 1979, 28(5), 260-266.
- Mercer, R.T., *First-time motherhood-Experiences from tens to forties*. Springer Publishing Co.
- Mercer, R.T., Hackley, K.C., & Bostrom, A.G.,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and perinatal variables to perception of childbirth. *Nursing Research*, 1983, 32(4), 202-207.
- Peterson, G.H., & Mehl, L.E., Some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8, 135(10), 1168-1173.
- Robson, K.S., & Moss, H.A.,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s*, 1970, 77, 966-985.
- Schneider-Rosen, K. & Cicchetti, D.,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Maltreated Infants : Quality of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Visual Self-Recognition. *Child Development*, 1984, 55, 648-658.
- Shereshefsky, P.M., & others., Maternal adaptation. In P.M. Shereshefsky, & L.J. Yarlow(Ed.). *Psychological aspects of a first pregnancy and early postneonatal adaptation*. NY : Raven press, 1973.
- Sroufe, L.A., Fox, N.E., & Pancake, V.R.,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1983, 54, 1615-1627.
- Stern,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 the caregivers's repertoire & the infant's repertoire. *The Developing Child*, 1977.
- Svejda, M.J., & Campos, J.J., Mother-Infant "Bonding" : Failure to generalize. *Child Development*, 1980, 51, 775-779.
- Taylor, P.M., Taylor, F.H., Cambell, S.B., Maloni, J.A., & Cannon, M. Extra Early Physical Contact and Aspect of the Early Mother-Infant Relationship. *Acta Poediatrica Scandinavica, Supplement*, 1985, 316, 3-14.
- Thomas, A., & Chess, S.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 /Mazel Publishers, 1977.
- Tulman, L.J.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1, 3(4), 7-14.
- Tulman, L.J. Initial handling of newborn infants by vaginally and cesarean-delivered mothers. *Nursing Research*, 1986, 35(5), 296-300.
- Walker, L.D., & Thompson, E.T.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In S.S. Humenick (Ed). *Analysis of current assessment strategies in the health care of young children and childbearing families*. Appleton-Century-Crofts, 1982.
- Westbrook, M.T. The reactions to child-bearing

& early maternal experience of woman with differing marital relationships. *Br.J. Med. Psy.*, 1978, 51, 191-199.

Widmayer, S.M. & Field, T.M. Effects of Brazelton demonstrations on early interactions of preterm infants and their teenage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80, 3, 79-89.

Worobey, J., & Belsky, J. Employing the Brazelton scale to influence mothering :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three strategi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82, 18(5), 736-743.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 of Primipara's Mother-Infant Interaction by Infant's Monthly Age

Bang, Kyeong-Sook.* Han, Kyung Ja*

The intent of this longitudi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mother-infant interactions over the periods of one month, three months and six months of the infant's age.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ree major factors-the perception of pregnancy,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maternal attitude.

The samples participated are 36 pairs of mother and infant from two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A data collection was made, from October in 1988 to September in 1989, for each subject at five periods of time : prenatal period (after 36 weeks in pregnancy), postpartum two or three days, one month, three months and six months of infant's age.

The research tools used in this investigation are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IS), 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and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from one month to three months and six months of infant's age. The highest score of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during three periods is at the time of three months.

2. The primipara's mother-infant interaction is not affected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and vocation of mother, types of delivery, or sex of infant.

3. Among seven categories of the perception of pregnancy, the most positively perceived categories by primiparas are acceptance of pregnancy and identification of a motherhood role ; whereas the negative ones are preparation for labor, concern for well-being of self and baby, and fear of pain,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in order of negativity.

4.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regnancy and the mother-infant interactions.

5.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aternal attitude over the period of one month, three months, and six months of infant's age.

6.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attitude and the mother-infant interactions.

7.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found between the perception of pregnancy and maternal attitude, especially in the categories of concern for well-being of self and baby, acceptance of pregnancy, identification of a motherhood role, fear of pain, helplessness and loss of control, and relationship with husband.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primipara's

*Dep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other-infant interactions change over time period, and that perception of pregnancy and the maternal attitude do not affect the mother-infant interactions despi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variables.

The implications of this investigation include a

suggestion that nurses need to teach and demonstrate to mothers how to care for and interact with their infant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mother-infant interactions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maternal sensitivity to their infants.